

비전향장기수와 ‘간힌 몸’의 삶, 그리고 정동*

이소영**

초록 이 글은 김하기의 소설을 통해 정동(affect)의 관점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의 몸과 이데올로기가 맺고 있었던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무엇보다도 비전향장기수들의 고통받는 육체에 주목하는 것으로, 타인의 고통을 언어화하는 작업에 내재한 윤리적 긴장까지 탐구해 보고자 하는 시도다. 김하기의 텍스트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은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정동적 과잉은 감옥 권력이 비전향장기수들의 몸의 능력을 최대한 감쇄시키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육체적 고통을 겪을 때마다 시간성의 감각을 상실하며 서사적 잔해의 순간에 내던져진다. 그때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통해 그들의 중단된 삶의 서사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전향장기수들은 그들의 몸과 이데올로기가 전향 제도로 묶여 있는 터무니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이들이 드러내는 혁명적 낙관주의는 이상하게도 관찰자로 하여금 잔혹함을 느끼도록 만든다. 이는 그들이 이데올로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애착에 내재한 낙관주의가 그들의 안녕(well-being)을 끊임없이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잔혹함에 대한 인식은 한 번도 ‘간힌 몸’이 되어 보지 못한 ‘관찰자’의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전향제도는 1998년 준벌서약제로 대체되었다가 2003년 폐지되지만, 여전히 석방된 장기수들의 북한으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들의 육체를 구속하고 있다.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전향자로 간주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지 못한 장기수의 사례는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낙관주의를 잔혹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되묻는다.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의 ‘간힌 몸’을 기억하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적 실천일 것이다.

주제어 김하기, 완전한 만남, 비전향장기수, 간힌 몸, 정동, 정동적 과잉, 서사적 잔해, 이야기하기, 전향제도, 잔혹한 낙관주의, 기억하기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1. ‘간힌 몸’의 관점에서 비전향장기수를 재현하기

이 글은 비전향장기수¹가 ‘고통받는 몸’이었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얻은 것이다. 여기서의 ‘고통’이란 특히 비전향장기수들의 육체적 고통에 주목하는 것으로 육체적 고통은 무언가에 대한 것이거나 무언가를 향한 것이 아니기에, 즉 대상(object)을 갖지 않기에 표현 불가능하다. 육체적 고통의 표현이 종종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이전의 소리와 울부짖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이 때문일 터이다. 즉, 육체적 고통은 다른 어떤 현상보다도 언어로 대상화(objectification)되는 데 저항한다.² 이 점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육체적 고통을 다룬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대상화한다는 곤혹스러움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대상화가 윤리적 기획이라는 역설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역설은 어떤 고통이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집단적 과제에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가 필수불가결했다는 점에서 항상 잠재되어 있는 문제였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향장기수들의 재현에 있어 ‘고통받는 몸’으로서의 측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스스로가 가장 기록에 남기고 싶어했었던 부분이 바로 옥중에서

1 여기서 말하는 비전향장기수란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반공법, 형법 상의 간첩죄 등이 적용되는 공안사건과 관련된 사상범으로서, 7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 가운데, 전향하지 않은 수형자”를 뜻한다.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 한국 전쟁 중 유격대 활동과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들, ② 흔히 간첩으로 불리는 남파공작원들, ③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구미유학생 간첩단 등 변혁 운동의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투옥된 사람들, ④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들 혹은 고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들 중 ‘조작간첩사건’으로 얽힌 사람들이다[한홍구·김귀옥(2006), 「(책머리에) 비전향장기수 구술 채록에 대하여」, 『비전향장기수구술 1 최하중』(최하중·한홍구·한모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2 여기서 ‘고통받는 몸’이라는 표현 및 ‘고통받는 몸’에 대한 이론적 통찰은 일레인 스캐리의 동명의 저서에서 착안한 것이다[일레인 스캐리(2018), 메이 역, 『고통받는 몸』, 오월의봄, p. 10].

3 일레인 스캐리(2018), p. 16.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⁴ 이는 또한 1973년 6월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의 설치로 자행되었던 고문의 생존자이자, 매달 15일 북한과의 가상 전쟁연습을 통해 집단 학살의 피해자로서 계속해서 모의—죽음을 당해야 했던,⁵ 그들의 '몸의 삶'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비전향의 의지”⁶ 및 “신념”⁷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를 간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몸'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를 따져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정동'(affect)에 대한 주목은 이데올로기와 몸의 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정동은 사라 아메드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달라붙는[접착성이 있는]^{'sticky'}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념·가치·대상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보존하는 것”이다.⁸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몸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보존하는 정동이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비전향장기수들의 정

4 한홍구와 김귀옥에 의하면, 비전향장기수 구술 채록 작업은 연구자나 출판인들의 관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비전향 장기수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고자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질문지 작성에서 옥중 생활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작업팀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옥중생활에 대한 기록은 비전향 장기수 자신들 입장에서 가장 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작업이 시작될 당시까지 간행된 『끝나지 않은 여정』 등 증언록에서 옥중생활 부분은 아주 소략하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작업팀으로서는 이 부분의 증언 채록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한홍구·김귀옥(2006), 참조].

5 한홍구·김귀옥(2006), 참조.

6 김희진·음영철(2022), 「김하기 소설에 나타난 국가의 규율 권력과 비전향 장기수들의 대응 양상」, 『융합학문과 기독교』 3(2), 삼육대학교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 pp. 87-89.

7 이미영(2017), 「'비전향장기수' 서사와 '신념'의 네트워크」,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pp. 203-220.

8 사라 아메드(2016),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행복한 대상」, 『정동 이론』(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갈무리, p. 57.

동에 관한 질문은 그들이 유독 “정상적 정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등 너무나 가혹한 공포분위기”하에서 옥중 생활을 견뎌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⁹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비전향장기수들을 지속적으로 재현했던 김하기가 “그들의 삶과 정서”를 공유하고자 노력했다고 발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¹⁰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김하기가 비전향장기수들을 재현하게 된 동기로 그의 개인적 이력을 곧잘 언급하곤 한다. 그는 1980년 5월 19일 부산대 학생회 집행위원으로서 계엄 확대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체적·강제 징집 당한다. 이후 부림 사건에 연루된 뒤, 헌병대, 보안사, 사단 영창, 군단 영창, 남한산성, 전주 교도소, 대전 교도소, 대구 교도소, 광주 교도소를 거치고 1988년 12월 21일에 가석방으로 출소된다. 그가 비전향장기수를 처음 만난 곳은 전주 교도소였는데, 처음에는 그들을 경원했었다. 그러나 교도소 쪽과 싸우다가 별방을 가게 되었을 때 비전향장기수들이 그를 위해 ‘식기 싸움’을 벌였고, 덕분에 그 이튿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의 경험을 계기로 그는 비전향장기수들과 육친의 정을 나누게 되고, 출소하게 되면 비전향장기수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겠다고 약속한다.¹¹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작가의 개인적 체험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관점”이 작중에서 젊은 수감자가 “어떤 뚜렷한 계기 없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이야기 (과거 경험담) 혹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소 급진적으로 “사상 변화”를 야기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일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¹² “비전향 장기수들과 함께 했던 실제 체험”은 “높은 사실성과 강렬한 주제

9 한홍구·김귀옥(2006), 참조.

10 김하기(1990), 「후기」, 『완전한 만남』, 창작과비평사, p. 311.

11 고종석(1990), 「분단의 통증·사상테러 체험언어로 고발한다 소설가 김하기씨 첫 창작집 『완전한 만남』」, 『한겨레』, 1990.10.21.; 이와 같은 비전향장기수들과의 만남은 『완전한 만남』의 후기에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김하기(1990), 「후기」, 『완전한 만남』, 창작과비평사, pp. 310-311].

12 김희진·음영철(2022), p. 91.

의식"을 확보하게끔 하였지만, "미학적 형상화를 위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일정 부분 대상과의 상상계적 동일시와 낭만화 경향, 휴머니즘의 과도한 착색 등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¹³ 이러한 지적들은 비전향장기수를 재현함에 있어 부딪히게 되는 곤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석방 운동의 기폭제가 되려는 윤리적 기획의 의도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형상화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들은 "어떤 지식은 특정한 관점으로부터만 도출 가능하며, 그 관점은 개인의 몸의 위치^{location}와 경험에 연관되어 있다"¹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곧 김하기가 소설을 통해 형성한,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특정한 '삶'이 장기수로서 역시 '갇힌 몸'이었던 김하기의 위치 및 경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즉, 김하기의 소설은 비전향장기수 당사자는 아니지만 '갇힌 몸'의 관점에서 비전향장기수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의 소설을 비롯해 옥중기, 구술, 다큐멘터리 등 여타의 비전향장기수 관련 자료와 구별되는 독특한 시각을 지닌다. 물론 김하기가 지니고 있는 견해가 독점적인 것은 아니며 이는 충분히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 주지 않는다면 그 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관점으로부터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¹⁵라는 점에서 김하기의 소설 속에 재구성된 비전향장기수들의 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더 이상 비전향장기수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끝내 북한으로 송환되지 못한 강제 전향장기수들의 여생(餘生)을 상상하는 일이기도 하다.¹⁶ 이에 본고에서

13 이소연(2016), p. 84.

14 아서 프랭크(2016), 최은경 역, 『몸의 증언』, 갈무리, p. 9.

15 아서 프랭크(2016), p. 9.

16 1993년 비전향장기수인 리인모 인민군 중군기자가 최초 송환되었으며, 2000년 9월 2일 총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북녘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고문에 의

는 김하기의 『완전한 만남』에 실린 텍스트들과 비전향장기수들의 구술들을 함께 견주어 보면서 작가가 재현한 비전향장기수들의 몸의 삶과 정동,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지점들을 의미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전향장기수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를 언어화하는 작업에 동반되는 윤리적 긴장의 의미까지 탐구해 볼 것이다.

2. 눈물은 이론을 초월한다: 비전향장기수 형상화에 있어 정동적 과잉의 함의

김하기의 『완전한 만남』에서 비전향장기수가 그려지는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비전향장기수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부터 물어야 할 것이다. 1989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비전향장기수 중 납과공작원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간첩에 대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감정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매우 자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완전한 만남』에서도 그 당시 일반 대중이 간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완전한 만남」(1989)에서 비전향장기수 ‘송춘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면회를 와서 자신의 아들이 “그 무서분 간첩”일

해 강제 전향 당한 장기수들은 송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2차 송환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따라 이들의 2차 송환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최초 희생자 33명에서 추가 13명까지 총 4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고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9명만 남아 있다[권오현(2023),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시간이 없다」, 민병래, 『송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원더박스, pp. 288-296]. 이 책과 더불어 같은 해, 〈송환〉(2003)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의 출소부터 그 이후의 삶과 송환의 과정까지 담아냈던 김동원 감독은 송환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장기수들의 이야기와 감독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께 엮어 낸 〈2차 송환〉을 개봉했다.

17 최정기(2007), 『비전향 장기수: 0.5평에 갇힌 한반도』, 책세상, p. 25.

리가 없다고 부정한다.¹⁸ 「첫눈 내리는 날」(1989)에서 간첩의 이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이원기'라는 인물의 상상 속에서 간첩은 “우물에 독약이나 뿌리고 양민에게 독침이나 쏘시고 땡기는” 위인이다.¹⁹ 이는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1990)에서 비전향장기수 '신남수'에게 교회사가 내뿜었던 말처럼 “가족마저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내뺨개치는 냉혈의 빨갱이”²⁰로 표상되는 국가의 '빨갱이 담론'의 자장 안에서 '비전향장기수' 역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즉, 비전향장기수=간첩=빨갱이로 이어지는 순환 속에서 비전향장기수는 '냉정함'이라는 감정을 지닌 존재로서 상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전향장기수들의 몸이 특정한 감정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라 아메드에 의하면, 특정한 주체 혹은 집단이 어떤 감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타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권력관계에 확실히 의존”한다. 이는 동시에 비전향장기수들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인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역사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가 우리에게 대상에 대한 특정한 인상을 이미 선사하는 한, 역사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것이다.²¹ 결국 '비전향장기수'에게 부여된 '냉정함'이라는 감정은 그 당시 독재 권력과 반공의 역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홍구·김귀옥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들어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였는데, 특히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고배를 마셨다. 이에 '유신 체제'를 무리하게 도입하였고, 반공적 위기감을 높이면서 내부적인 균열을 외환으로 극복하려는 정책을 취했다. 1970년대 초반에 비전향장기수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공작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맥락에는 이와 같은

18 김하기(1990), 「완전한 만남」, 『완전한 만남』, 창작과비평사, p. 55.

19 김하기(1990), 「완전한 만남」, p. 93.

20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완전한 만남』, 창작과비평사, p. 190.

21 사라 아메드(2023),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pp. 29-38.

배경이 있었다. 이때 교도소 측의 전향공작 방식 중 한 가지로 ‘백색 테러’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깡패 출신 강력범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비전향장기수들이 간혀 있는 특별사동에 청소부 등으로 배치한 후, 사방 열쇠를 그들에게 맡기고 임의로 비전향장기수들을 끌어내 구타, 물 고문 등을 감행하게 하는 것이다.²² 이때에도 ‘빨갱이 담론’은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백색 테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을 차지한다. 비전향장기수 안영기의 구술에 의하면, 그는 백색 테러를 당했을 때 “너 이 새끼 빨갱이놈의 새끼, 너 맥아더 사령관 죽이러 왔지, 암살하러 왔지, 이승만 대통령 암살하러 왔지?”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매질을 당했다고 한다.²³ 김하기의 「살아있는 무덤」에서도 “‘떡봉棒’이라는 견장을 붙인 흉악범 셋”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들이 당한 백색 테러를 상세히 보여 주고 있는데,²⁴ 여기서도 ‘빨갱이 담론’이 폭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떡봉 중 한 명인 ‘원삼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대표적이다.

어이 빨갱이들아. 나는 소지반장 원삼실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 빨갱이들과는 고양이와 쥐처럼 상극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도 알고보면 다 네놈들 때문이야. 아버지는 6·25때 인민군 땡크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대창에 찢려 무참하게 운명하셨단 말이다.²⁵

최정기에 의하면 비전향장기수의 수형 생활 자체에 관해서도 따로 법률이 부재한데, 이는 다른 수형자들과 똑같은 처우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22 한홍구·김귀옥(2006), 참조.

23 안영기·양정호·김귀옥(2007), 『비전향장기수구술 4 안영기·양정호』, 국사편찬위원회, p. 221.

24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완전한 만남』, 창작과비평사, p. 24.

25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27.

아니라 비전향장기수들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비전향장기수들의 통제에 있어 물리적 힘을 발휘하는 것은 빨갱이 담론으로, 빨갱이 담론이 우세한 시기에는 일상 생활에서 최악의 통제와 처우에 처해지지만, 인권주의 담론이 강해지면 일반 수행자들과 유사한 처우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²⁶

이렇듯 비전향장기수들이 빨갱이 담론 내에서 '냉정함'이라는 감정적 속성을 지닌 집단으로 치부되어 온 정황과 더불어 '비전향장기수'의 존재가 1980년대 중반부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하기의 『완전한 만남』에서 재현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인물들로 묘사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완전한 만남』의 표제작이기도 한 「완전한 만남」은 송춘호가 체포된 경위를 주된 에피소드로 다루고 있는데, 그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바로 그와 어머니의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대남연락부의 소환으로 남한에 가게 된 그는 “어머니와의 만남을 완전한 만남으로 만들기 위해 초대소에서 조직적 훈련과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목적의식과 핏줄이 하나가 되고 과학과 감정이 통일되는 만남을 기대하며 연구”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10여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니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다. 그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은 옆집에서는 “6·25때 행불된 빨갱이 송춘호가 고향집에 나타나 울고 있다”라고 신고하고 결국 그는 체포된다.²⁷

이와 같이 비전향장기수들이 갖고 있는, “혁명은 얼음처럼 냉엄해야 한다”라는 신념이 가족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은 종종 묘사된다. 「살아있는 무덤」(1989)에서도 비전향장기수 ‘허용철’은 30여 년 동안 헤어져있던 아내가 면회를 오자 “봉건적 가족주의는 혁명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하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고 만다.”²⁸ 「첫눈 내리

26 최정기(2007), pp. 55-56.

27 김하기(1990), 「완전한 만남」, pp. 73-74.

28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p. 11-12.

는 날」에서도 “한국의 영화는 그저 눈물주머니만 쥐어짜서 인민들의 투쟁성을 마비시키고 감상적 패배주의를 선전”하므로 “비판적으로 감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비전향장기수 ‘이상우’는 <미워도 다시 한번>, <기러기 아빠>를 보며 소매로 눈물을 짖어 낸다. 이상우뿐만 아니라, “선생들은 중간 중간 흐느끼며 훌쩍거리고 끝장면에 꼬마가 ‘아빠’하고 울부짖으며 달려갈 때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하는 선생들도 있었다.” 비판적 감상은 어디로 갔냐고 장난스레 물어보는 원기에게 이상우는 “눈물은 이론을 초월하는 모양이오.”라고 답하는데, 이에 원기는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빨개이나 간첩이라 카면 피도 눈물도 가족도 없고 독침이나 마구 찔러대는 종자들이라 배왔는데 이진 순 몰러빠진 울보들 아이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²⁹ 이러한 장면은 감정이 “정동적인 차원에서 대상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일을 수반”한다는 사라 아메드의 사유에 기대었을 때,³⁰ 명백하게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독자 대중의 부정적 방향을 긍정적으로 재설정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냉정함’이라는 감정적 속성이 아니라 ‘슬픔’, ‘그리움’ 등의 감정을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부여하여 비전향장기수들과 독자 대중의 ‘완전한 만남’을 기획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기획에 따른 ‘정동적 과잉’의 함의는 “감정이 사회적 위계를 수호하는 일과 관련이 있음”을 상기했을 때,³¹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 수형자는 일반적으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의해 분류되는데, 이는 “죄명, 죄질, 형기, 전과 유무, 연령, 경력 등으로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판단”하여 A, B, C, D급으로 분류하고 책임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우 급수는 4급에서 1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급수가 올라갈수록 처우가 완화되는 누진처우의 특성을 지닌다. 이때 비전향장기수는 ‘미지정’으로 누진처우 자체에 대해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누진처우로 인한 “차별 구

29 김하기(1990), 「첫눈 내리는 날」, pp. 100-101.

30 사라 아메드(2023), p. 37.

31 사라 아메드(2023), p. 29.

조에서 최하층을 차지”한다. 이는 비전향장기수의 분류나 처우에 있어서 이들을 교화시키려는 목적보다는 “고립감과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의도가 크기 때문이다.³² 이 때문에 “감옥 권력이 비전향 장기수에게 강제하는 통제의 기본은 완전 격리와 절대적인 침묵”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이에 비전향 장기수는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할 뿐만 아니라,³⁴ “육체 및 동작”에 있어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³⁵

우선 기상과 동시에 해야 할 행동이 규정되어 있고 취해야 할 자세까지 정해져 있다. 심지어 앉아 있을 때는 정좌를 해야 하고 깨어 있을 때는 누워서는 안 되며, 반대로 잠잘 때는 누워야 하고 앉아서서는 안 된다. 밥 먹고, 감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도관의 특정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취해야 할 행동까지 모든 행동에 대한 자세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과 자세에 대한 강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비전향 장기수의 육체와 동작 모두를 길들이는 힘으로 작용한다.³⁶

위 인용문에 따르면 비전향장기수들의 몸은 정동적으로 매우 억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동이 “정동하고^{affected} 정동되는^{affected} 몸의 능력^{capacity}”³⁷ 으로서 그 자체로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면, 비전향장기수들은 “30분 정도의 운동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독거 감방에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³⁸ 실은 그마저의 운동 시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몸의 능

32 최정기(2007), pp. 62-63.

33 최정기(2007), p. 114.

34 최정기(2007), p. 57.

35 최정기(2007), p. 77.

36 최정기(2007), pp. 77-78.

37 그레고리 J.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2016),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미명의 목록(창안)」, 『정동 이론』(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갈무리, p. 16.

38 최정기(2007), p. 77.

력 자체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통제되고 있기에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하기 소설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은 종종 “무덤속의 토용”으로 형상화되곤 한다.³⁹ 「살아있는 무덤」에서의 다음과 같은 묘사가 대표적이다.

특사 내부는 완전히 밀봉된 고대의 지하왕릉을 연상시켰다. 들어가는 사동 입구에는 이중철문이 녹슨 금강역사처럼 육중하게 팔짱을 끼고 가로막아 섰고, 나방 똥과 털먼지를 흠뻑 뒤집어쓴 30축 앞전구가 침침한 빛을 흘리고 있는 길고 음산한 사방 복도는 좌우의 수십개의 폐쇄독방을 현실(玄室)처럼 거느리고 있었다.

…(중략)…

좌우 양편의 독방 안에는 30~40여년의 수형생활에 들피지고 깡마른 수십명의 비전향 사상범들이 무덤속의 토용처럼 시간을 뛰어넘어 세월마저 잊은 채 곳곳하게 좌정하고 있었다.⁴⁰

「살아있는 무덤」은 위와 같은 기술에 이어 “땀통담당”이 잠든 사이 “2방 한창호씨가 5방으로 타전”을 보내는 장면을 보여 준다.

“딱딱 딱딱 딱 지익 지익지익 딱딱 딱딱 지익 딱딱딱딱 직.”(담당이 뿔아떨어졌으니 시작합니다.)

빨갱이들은 눈치가 백축이라 눈만 마주쳐도 열가지 의미를 주고받는다며 일체의 접촉이나 통방을 금지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바둑돌이나 잔돌멩이로 벽을 쳐서 모르스 신호를 보내 의사를 전달하는 타전은 특사의 독창적인 연락방법이자 언어매체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단의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39 김하기(1990), 「첫눈 내리는 날」, p. 89.

40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p. 5-6.

두꺼운 벽을 오히려 대화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타전은 마이너스 조건을 플러스로 살리는 고도의 변증법적 방법이었다. 타전 소리는 비록 시멘트벽과 돌이 마주쳐서 나는 단조롭고 건조한 분절음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겐 죽지 않고 서로 살아 있다는 심장 박동소리로 들렸고 둔탁한 타벽음에서 뜨거운 동지애가 깃든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을 헤아려 느낄 수 있었다.⁴¹

“일체의 접촉이나 통방을 금지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비전향장기수들은 “타전”의 방식을 개발해 의사소통한다. “타전 소리”는 그 자체로 “그들에겐 죽지 않고 서로 살아 있다는 심장 박동소리”로 들릴 뿐만 아니라, “둔탁한 타벽음”을 통해 그들은 “뜨거운 동지애가 깃든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낀다. 이와 같은 대목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재현에 있어 ‘정동적 과잉’이라는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즉, ‘정동’은 그 자체로 비전향장기수들의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 때문에 이 소설은 ‘무덤’으로 표상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 주는 구조를 취한다. 이 텍스트의 시간적 배경은 1988년 말로, “복도 중간인 17방”의 비전향장기수 ‘최해중’은 “특사의 송년회”를 알리며, “각자 송구영신의 소감을 피력한 뒤 노래”를 한 곡씩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이에 “억양은 직수굿이 억제되었지만 기쁨에 찬 화답의 음성”이 특사의 복도를 채운다.⁴² 그러나 이들의 송년회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순시를 돌고 있던 당직과장과 계장, 주임, 부장이 특사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를 듣고 갑작스레 밀어닥쳤기 때문이다. 보안과장은 “취죽은 듯이 조용해야 할 특사가 생긱을 하고 있”다면서,⁴³ 누가 노래를 불렀는지 자수하라며 다그치고, 향의의 표시로 노래를 부르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입에

41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6. 강조는 원문.

42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7.

43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16.

“방성구(防聲具)”를 채워 버린다. 선동자로 지목된 최해중은 군인들에 의해 짓밟히지만 “방성구를 채운 입안에서도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인 듯 신음소리인 듯 슬픈 음조로 통일의 노래”를 부른다.⁴⁴ 이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정동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그들을 유사-죽음에 가까운 형태로 억누르려는 감옥 권력 대 고통으로 언어가 분쇄된 상황에서도 뭉개진 노랫소리를 통해 정동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려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대립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즉, 김하기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정동적으로 과잉된 양상으로 묘사함으로써, 비전향장기수들이 슬픔, 그리움 등의 감정적 속성을 지닌 인간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나아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엄연히 ‘살아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야기하기’의 동심원 구조

앞서 다루었던 「살아있는 무덤」은 최해중의 가물가물해지는 의식 사 이로 “73년 9월의 집단적 살인테러 전향공작사건이 시커먼 군화발처럼 온 몸에 파고들어 생생한 화면으로 되살아나”도록 한다.⁴⁵ 이와 같은 장면 전환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바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최해중의 현재적 삶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중단’ 이후로 과거의 전향공작 사건이 서사화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아서 프랭크가 질병에 대해 논하면서 주장한 ‘서사적 잔해’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적 잔해’는 프랭크가 로널드 드워킨(Ronald Myles Dworkin)에게서 빌려 온 표현으로, 질병에 의해 “시간성^{temporality}의 감각을 갑자기 상실”하는 것이다. 그는 “질병 이야기가 잔해인 이유”로 “현재는 과거에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

44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18.

45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19.

고 미래는 거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⁴⁶ 물론 프랭크는 ‘질병’에 초점을 두면서 ‘서사적 잔해’라는 용어를 제시하지만, 이는 심한 구타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해종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서사적 잔해의 순간에 직면하였고, 전향공작사건 당시의 과거로 회귀한다. 이 생생한 과거는 “과거가 과거로서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에게 전향공작사건은 “과거가 되기를 거부하고 현재를 따라다니는, 동화되지 않는 파편”인 것이다.⁴⁷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파편적인 기억들이 그 자체로 최해종이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비전향장기수들의 고통받는 몸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⁴⁸ 분명 “1973년 9월 23일 오전”⁴⁹이라는 시점의 기억은 최해종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으나, 최해종이 숙부로부터 전향 회유를 받고 다시 감방에 돌아와 동료들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기까지 ‘박석기’, ‘박용서’, ‘육연우’, ‘김국호’, ‘탁기섭’, ‘진태관’ 등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겪은 고문 혹은 죽음뿐만 아니라 청년 ‘이태석’이 당한 성폭력까지 고통받는 몸들의 재현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전향공작사건 당시 비전향장기수들의 고통받는 몸들을 최해종의 기억이 둘러싸면서 마치 동심원이 그려지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동심원의 구조가 파문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여기서 파문을 던진 장면은 바로 박석기가 고문을 당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46 아서 프랭크(2016), pp. 124-126.

47 아서 프랭크(2016), pp. 134-135.

48 아서 프랭크는 좋은 질병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목격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는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에 진실인 것을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이 진실은 당신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은 그 진실 없이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당신의 몸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서 프랭크(2016), pp. 140-141.

49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19.

박선생은 다소 주관적이고 자기가학적이던 죽음의 미학이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죽음이 가진 너무나 큰 의미에 비해서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해오던 그에게 지나간 살인고문의 시간이 닥쳐온 것이다. 죽을 때와 장소를 발견하면 죽음을 이마 정면으로 직시하고 한치도 옆으로 비켜나지 않는 것이 혁명가의 제일조건이라고 다짐했던 그에게 죽음의 시간은 너무도 느릿느릿 다가오는 것 같았다. 시뻘경계 달구어진 쇠꼬챙이가 어깻죽지에 꽂혀 살을 태우며 식어갈 때 그는 그만 전향하겠다고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싶은 최후의 유혹이 몽롱한 의식을 뒤흔들었다.

...(중략)...

‘아무도 안 알아주는 개죽음이라고? 정말 쓸쓸하다. 이 죽음의 마당에서 고통을 느끼기보다 왜 이리 외로운가.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최후로 한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로움을 호소한 게 아니었던가. 폐쇄된 특사 속에서도 후미진 밀실! 나의 죽음을 증언할 그 무엇도 없구나. 수억개의 눈을 가진 역사도 여기는 비켜 흐르는구나. 저 누렇게 맥없이 비치는 30층짜리 알전구가 나의 죽음을 증언해줄까?’

박선생은 살이 타는 고통의 구멍 속에서 오히려 진한 인간적 외로움의 냄새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⁵⁰

박석기는 평소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동료들에게 피력하곤 했다. 그에 의하면 “죽음의 미학은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마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명가의 순교적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다가가는 고통의 시간을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50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p. 31-32.

51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31.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이 너무도 느리다고 느낀다. 그리고 고통 자체보다도 깊은 외로움에 잠긴다. 이는 “폐쇄된 특사 속에서도 후미진 밀실”에서 고문이 자행되었기에 “나의 죽음을 증언할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수억개의 눈을 가진 역사도 여기는 비켜 흐르”고 있다는 서술은 다름 아닌 서사적 잔해를 표현한다. 서사적 잔해가 자아내는 파문은 이 소설에서 윤리적 긴장감을 야기한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서사적 잔해에서 벗어나도록 무언가 해야 한다는 윤리적 실천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서사적 잔해를 묘사하는 데서 머무르고 있지 않다. 이 텍스트는 서사적 잔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전향공작사건 당시 “그들의 죽음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 어느 하나도 항의하거나 위로해주지 않았다.”⁵²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가 고통의 목격자, 나아가 증언자가 된다. 박용서는 흉악범들에 의해 바늘 고문을 당한 후 방에 돌아와 “자신이 당한 고문 사실을 옆방 양선생에게 돌을 두드려 타전하다가 기력이 떨어져 죽어갔다.”⁵³ 또한 이태석은 일본에서 조총련과 접촉한 혐의로 간첩으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5년이 못 된 20대의 청년이었는데, 그도 원삼실에게 성폭력 당한 이야기를 다른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털어놓는다. 전향공작사건의 기억은 고문에 못 이긴 진태관의 전향성명서 발표로 괴로운 표정을 짓

52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33.

53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33.; 작중에서 ‘양선생’은 ‘양정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인물 역시 실제 비전향장기수인 양정호를 모델로 한 것이다. 양정호의 구술에 따르면, 박용서는 “생 바늘로 발을” 찢리는 고문을 당하였으며, 양정호가 약을 준 것이 발각되자 일주일 동안 매질을 당하였다. 그는 양정호에게 “머리를 계속 때리는데 정신이 살아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일주일의 경과되었을 때, 아침에 누가 “희미하게 타전”을 쳤는데, 바로 박용서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사리원에 있는데 이름은 박창식이라며 부탁한다는 타전을 치고 더 이상 양정호의 타전에 응답하지 않았다[안영기·양정호·김귀옥(2007), 『비전향장기수구술 4 안영기·양정호』, 국사편찬위원회, pp. 390-391].

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최해종이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노래를 부를 것을 제안하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이때 옆자리의 ‘양청호’는 최해종에게 동조하면서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음과 같이 의미화한다. “통일이 너무 쉽게 되어버리면 우리들이 아들딸들에게 **항일독립군과 같은 감동스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⁵⁴ 양청호의 발언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사유하게끔 만든다. 그들의 몸의 삶은 구타, 고문 등의 육체적 고통으로 때때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일시에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며 서사적 잔해에 속수무책으로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들의 서사적 잔해를 복구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던 것이다.

‘이야기하기’의 중요성은 최해종의 실제 모델인 최하종의 구술에도 기록되어 있다.

4사에서 말이죠? 네. 거기서 김종호 동지랑 나 혼자거든요. 조국 소식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때 우리 4차 당대회 금방 끝난 다음에 여기 왔거든요. 4차 당대회는 거의 ‘7개년계획’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 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선노동당 투쟁사를 군관학교에서, 도당학교나 도 간부학교 1년반이나 6개월반에서 120시간 짜리 해봤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그때 대체제물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쪽 그냥 보지 않고서 얘기할 수 있는.

…(중략)…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 아마 10번은 더 했을 거라. **그래서 저기에 최근에 내려온 사람으로서 여기 오래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당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자면 전수하는 거.**

54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50. 강조는 인용자.

...(중략)...

다들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기서 우리가 그 동안에 읽었던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 출간된 소설들, 그 이야기한다고 쪽. 근데 요새는 전혀 못하겠네.

그러니까 옛날 장터 이야기꾼 역할들을 하시는 거네요. 시간이 남아돌아 가지고. 그리고 또 처음 만나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이거 한 두어 번 더 하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해봤자 더 듣지 않거든요. 그럼 그 다음이 참 힘듭니다. 할 이야기도 없지. 그저 멍하니 앉아서 서로 얼굴 보고, 책은 없지. 그래가지고 그땐 사회이야기가 있으면 소일거리도 되고 징역도 편하게 보내는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해. 그래서 소련소설 이야기나, 『벗나무』라든지 전시에 읽었던 소설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했어요.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같은 건 내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 노동당투쟁사 120시간짜리 그건 70시간 정도 외우면 제가 옮기는 것부터 차차차 한 40시간 돌았죠. 그건 많이 돌았어요.⁵⁵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이야기하기는 북한의 최신 이데올로기를 다른 장기수들에게 전수하는 행위이자, 감옥의 무한한 시간성을 자기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했다.⁵⁶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의 서사적 잔해를 드러낸다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나누는 이야기의 내용이 어느 시점에 머물러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들의 서사가 중단되어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55 최하중·한홍구·한모니까(2006), 『비전향장기수구술 1 최하중』, 국사편찬위원회, pp. 335-336. 이탤릭체는 인터뷰어의 발언이며, 볼드체 강조는 인용자.

56 임유경은 비전향장기수 서준식의 옥중기를 분석하면서 그의 글쓰기가 “교도소의 시간에 복속되어 있지만 또한 그것과는 다른 리듬을 갖는” “체제의 시간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고 의미화한 바 있다[임유경(2016), 「체제의 시간과 저자의 시간: 『서준식 옥중서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58, 한국문학연구학회, p. 331].

불구하고 이야기하기는 비전향장기수들이 감옥의 시간성으로 인해 부식된, 그들의 삶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다. 아서 프랭크 역시 서사적 잔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하며, 특히 ‘자아-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자아-이야기’란 말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이야기하는 행위란 이중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확인되는 동시에 자아가 재확인된다. 이는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기 자신 또한 스스로를 위한 청중으로서 “**자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즉, 이야기하기는 자신의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살아 있음을 통해 그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중단된 서사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

따라서 김하기의 「살아있는 무덤」은 ‘간힌 몸’이 겪었던 외로움의 고통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간힌 몸은 혼자가 아니었으며, 간힌 몸을 둘러싼 또 다른 간힌 몸들이 있었고, 그 몸들이 서로 ‘목적’한 이야기가 동심원처럼 점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퍼져나가는 이야기는 고통 혹은 죽음을 경험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포함하면서도 이를 목격한 자의 경험으로 둘러싸인 이야기일 것이다. 목격자 역시 폭력을 경험한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무수하게 만들어지면서 퍼져 나간다. 이러한 동심원의 구조는 정동을 증폭시키기 마련이다. 김하기의 『완전한 만남』에 내재한 정동적 과잉의 함의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57 아서 프랭크(2016), pp. 127-128. 강조는 원문.

4. 몸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잔혹한 낙관주의

「살아있는 무덤」은 과거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힘차게 불렀던 최해중이 현재의 시점에서 “무의식 상태에서도 방성구를 문 채 지겹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중단되었던 현재의 서사를 다시 이어 나간다. 최해중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다쳤기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거짓으로 화해를 요청하는 보안과장에게 최해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수는 그만둬시다. 방금까지 그 손에 의해 짐승처럼 당한 내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그 끊임 없는 폭력은 우리의 사상을 견고하게 해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동지들이 있는 특사로 보내주세요. 그들과 같이 새해 축하인사를 나누어야겠소.⁵⁸

“끊임없는 폭력”이 “우리의 사상을 견고하게” 만드므로 오히려 간수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최해중의 말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있어 그들의 몸과 이데올로기가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비전향장기수 서준식의 인터뷰에 의하면 전향공작은 장기수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향공작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이 장기수로 하여금 그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신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⁵⁹ 그러나 폭력이 강해질수록, 이에 대항하여 신념도 투철해진다는 폭력과 신념의 비례 관계 이전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비전향장기수에게 있어 ‘몸’과 ‘이데올로기’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에 대한 힌트는 「살아있는 무덤」에서 제시된 전향공작사건에서 찾아

58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53.

59 김두훈·오수인(2015), 「전향·비전향 장기수의 공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 담론 분석과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4,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 68.

볼 수 있는데, 비전향장기수들은 “전향해서 사느냐, 전향을 거부하고 죽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인다.⁶⁰ 그리고 전향을 거부한 장기수들은 서약서를 작성한다.

서약서.

저는 전향하지 않겠습니다.

이 때문에 개처럼 맞아죽어도 관이나 관리를 탓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런 유감 없이 기꺼이 죽음을 감수할 것을 이에 서약하나이다.

1973년 9월 23일.⁶¹

최해중은 전향하지 않는 대신, 개처럼 맞아 죽어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아무런 유감 없이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아무리 우리들이 힘없는 포로 신세라 하더라도 이런 터무니없는 형식으로 욕아 댈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며 한탄한다.⁶² 바로 이 지점이 비전향장기수들의 몸과 이데올로기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다름아닌 ‘터무니없는 형식’에 의해 몸과 이데올로기가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때 ‘터무니없는 형식’이란 결국 전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향이란 “반체제 운동의 지도자나 진보적인 지식인이 국가 권력의 강제에 굴복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을 변경”함을 뜻한다. 전향제도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치안 유지법과 함께 시행되었던 제도였지만 해방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1949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보도구금 조항이 삽입되었고 1956년에는 법무부장관령에 의해 사상전향을 공식적인 제도로 확립하였다. 이때부터 비전향장기수의 전향 여부는

60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20.

61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21.

62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22.

관계 당국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⁶³ 전향제도는 1998년 7월 준법서약제로 대체되었다가 2003년 7월에 폐지되기까지 비전향장기수들의 육체를 감옥에 구속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의 몸과 이데올로기가 맺고 있는 관계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에 의해 그들의 육체가 감옥에 물리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결핵과 같이 생사가 걸린 질병에 걸려도 “생명이냐, 사상이냐…… 하나를 택하라”라는 선택을 강요받았다. 전향을 하면 치료를 해주고, 전향하지 않으면 치료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⁶⁴ 「살아있는 무덤」에서도 비전향장기수 ‘서옥렬’은 왼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요구했지만 교도소 의무과에서 전향을 조건으로 내세우자 포기한다.⁶⁵ 이때 중요한 것은 몸과 이데올로기가 전향제도라는 형식에 묶여 있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 자체가 비전향장기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체에 대해 더 자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서옥렬의 경우 “수술을 포기하고 허준의 동의보감을 연구한 끝에 참새똥과 늦쇠가루를 섞어 눈에 바르면 좋다는 비방”을 얻어 “운동시간이면 참새똥을 주우러 다니고 틈만 나면 경첩의 늦쇠가루를 긁어 눈”에 발랐다.⁶⁶

또한 비전향장기수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면, 감옥권력이 전향제도를 통해 의도하는 몸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넘어서는, 비전향장기수들 특유의 정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살아있는 무덤」에서 비전향장기수인 ‘유환옥’은 196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기어이 통일을 보고 눈을 감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두시에

63 최정기(2007), pp. 65-66.

64 비전향장기수 김해섭은 결핵에 걸려서 원무과장에게 갔으나, 원무과장은 교무과장을 면회하라고 하면서 전향을 하면 치료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해 주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결국 그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박종린 외 9인(2010), 『비전향장기수구술 8 박종린·김인수·김해섭·송세영·안학섭·김우택』, 국사편찬위원회, p. 305].

65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14.

66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14.

기상하여 냉수마찰”을 하였으며, “턱이 처져 비틀어진 입도 매일 손바닥으로 쳐올리고 손으로 입술모양을 바로잡고 해서 마침내 곧게 돌아왔다.” “이제는 지팡이 하나만 짚었다는 것 이외에는 정상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⁶⁷ 유환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향제도라는 형식 속에서 그는 통일에 관한 신념과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 그의 육체를 단련한다. 이렇듯 그에게 있어 몸과 이데올로기를 단단하게 결합시켜 주는 것은 바로 통일에 대한 ‘낙관’이라는 정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실제 비전향장기수 장호는 징역을 사는 동안에도 “무슨 좋은 일이 혼자 있는지 싱글벙글”했었다는 평을 들었는데, 비결이 무엇이나는 한홍구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한다.

난 징역을 멋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에 한번 걸린 멋으로. 그래야 편하고, 낙관성이 있게 되죠. 그거 일일이 모든 걸 고통스러운 거라던가 짜증스러운 그런 걸로 생각하면 못 살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요. 혁명적 낙관주의. 그런 걸로 항상 마음먹고 사는 거죠.⁶⁸

장호는 32년 6개월 간의 긴 수형 생활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 “징역을 멋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야 “편하고, 낙관성”을 지닐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혁명적 낙관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김하기의 『완전한 만남』에서도 비전향장기수들이 비판적인 상황 속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첫눈 내리는 날」은 병참수송병이었던 원기가 뼈라를 갖고 있었다는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군단영창을 거쳐 남한산성으로 갔다가 탈옥하여 추가형으로 3년을 받은 뒤, 전주교도소에서 비전향장기수들과 함께 특사에

67 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9.

68 장호·한홍구(2006), 『비전향장기수구술 3 장호』, 국사편찬위원회, p. 148.

수용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원기는 국졸의 학력에 주물 일을 했었다는 진술로 보아 전형적인 노동자로 보인다. 그러나 군단영창-남한산성-전주교도소로 이어지는 그의 이동 경로는 작가 김하기를 연상시킨다. 더욱이 이 텍스트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거부감을 느꼈던 원기가 옆방 이상우에게 감화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에 작가의 경험이 다분히 녹아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사에서는 “변소 봉창의 철망과 나무판자를 걷어내고, 운동장 한가운 데를 지르고 있는 사이벽을 허물어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첫눈 내리는 날 단식에 들어가”기로 한다.⁶⁹ 원기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릴 노예로 만들고 있는 놈들과 싸워나”가기로 마음 먹으며 이에 동참한다.⁷⁰ 그러나 교도소 측에서는 학생사범이나 국내정치범의 단식과 달리 장기수들의 단식이 사흘째가 되어도 무관심으로 대응하다가, 닷새째부터 주동자로 짐작되는 장기수들을 보안과로 부르거나 꼬투리를 잡아 먹방에 집어넣는다. 교도소 측은 단식 9일 만에 먹방에 갔던 장기수들을 환방 조치하고 요구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반전을 이끌어 낸 것은 바로 이상우의 죽음이었다.

“그렇소. 이선생님은 원래 직장암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 단식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의무과장 말로는 직장암이 폐암으로 전이되어 폐 속에 돈짜만한 암종이 포도송이처럼 열려 있었다는군요.”

“언제 돌아가셨는요?”

“단식 9일만ियो. 어제 아침 잠수 탈 때 본무가 죽은 상태로 발견했지요.

69 김하기(1990), 「첫눈 내리는 날」, pp. 101-102.

70 김하기(1990), 「첫눈 내리는 날」, p. 104.

아마 밤중에 운명하셨을 겁니다.”

원기는 복도바닥에 머리를 웅크려박고 훌쩍거렸다. 눈물이 눈썹을 타고 이마에 미끄러져 머리꼭대기로 흘러내려 바닥에 푹푹 떨어졌다.

‘아, 그분은 고향을 참 보고 싶어했는데…… 아메 지금쯤 고향에 갔을지 구마는……’

갑작스런 이상우선생의 죽음으로 상황은 반전되어 먹방에 갔던 선생들은 모두 환방되었고 요구조건은 관철되었다.

…(중략)…

최해중선생이 영선담당에게 말했다.

“이 벽은 우리의 한이 맺힌 벽이오. 우리 손으로 허물겠소.”

“안돼요. 영선 외의 다른 재소자들은 도구를 못 쓰게 되어 있소.”

“안되기는 뭐가 안된단 말이오. 자 운동하는 여러 선생님들. 도구를 하나씩 잡으시오.”

선생들은 해머, 곡괭이, 망치 등을 하나씩 잡고 벽돌담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원기는 해머를 붙끈 쥐고 있는 힘을 다해 담 가운데를 때렸다. 짹. 담에 금이 갔다. 다시 찍었다. 벽돌조각이 튀면서 벽이 흔들 진동을 했다.

“우리 함께 발로 콧 차뿌립시다!”

“그게 좋겠소.”

선생들이 벽 양쪽으로 붙어 차고 밀어붙이니 벽이 기우뚱했다. 다시 힘차게 밀어붙이니 벽이 휘영청 기울어지더니 마침내 바닥에 넘어져 와르르 무너졌다. 특사 운동장이 두 배나 넓어지고 만나지 못했던 운동조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최선생이 해머를 쥔 채 무너진 벽돌더미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동지들, 이 작은 벽 하나 허무는 데도 이상우선생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하물며 민족을 갈라놓은 저 거대한 분단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하겠소. 하지만 이런 작은 벽 하나 하나를 허물다보면 언젠가는 분단의 큰 벽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겁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말

고 역세계 싸워나갑니다.”⁷¹

원래 직장압에 걸려 있었던 이상우는 무리한 단식으로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직장압이 폐암으로 전이되어 폐 속에 돈짜만한 암종이 포도송이처럼 열려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이상우의 죽음 이후,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였던 운동장의 벽을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허문다. 최해중은 눈물을 흘리며 해머를 쥔 채 벽돌더미에 올라 “언젠가는 분단의 큰 벽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니, “통일의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역세계 싸워나갑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상하게도 잔혹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잔혹함은 이 글의 집필 시점에서 통일의 기미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육체가 겪어 온 삶의 차원에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의 몸의 삶이 잘 드러나는 작품은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1990)이다. 이 텍스트는 비전향장기수 ‘신남수’의 새벽 일과와 그가 살아온 내력을 병치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소설은 새벽 풍경에서 유독 그의 육체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도 그는 봉은사 예불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청이불을 개어놓고 뽕 끼통으로 들어갔다. 신새벽 서릿발에 날을 간 칼바람이 변소 봉창에 친 비닐창을 찢고 들어와 이불속에 다습게 데워진 그의 몸을 사정없이 예웠다. 미지근했던 두 발바닥이 짹짹 소리를 내며 시멘트바닥에 달라붙었다.

그는 목덜미와 겨드랑이에 난 왕소름을 털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등골을 부르르 떨며 진저리를 쳤다. 그리고 그는 제자리뛰기를 시작했다. 되도록

71 김하기(1990), 「첫눈 내리는 날」, pp. 108-109. 강조는 인용자.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 앞꿈치에 몸의 중심을 실었다. 발을 재게 놀리자 오그라들었던 뼈마디와 관절이 서서히 풀리고 식은 발바닥이 달구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뜨끈뜨끈해지며 온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그는 이른 새벽마다 0.75평의 좁은 감방에서 벌써 30년째 달리고 있었다. 감옥에 들어와서 제자리뛰기의 첫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는 팔팔한 삼십청춘이었다. 그러나 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서른 번이나 예뎠아 뛰는 동안 머리엔 어느새 흰서리가 앉고 얼굴엔 군데군데 잔 검버섯이 핀 육순의 할아버지가 되어 달리고 있었다.⁷²

그는 이른 새벽마다 0.75평의 좁은 감방에서 30년째 제자리뛰기를 하고 있다. 그는 항상 북창을 바라보고 달리는데, 팔순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고향이 북쪽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리뛰기를 하면서 제2의 고향인 북창에 있을 아내와 아들을 떠올린다. 다음 인용문은 그가 시간성의 감각을 상실해 버렸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어쩌면 아내와 아들은 나이를 먹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만이 바닥 모를 시간의 구덩이에 떨어져 순식간에 늙은이가 되었다. 지금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조차 현실이 아니다. 길고 긴 꿈을 꾸고 있을 따름이다.** 이 악몽이 깨어나면 아내는 보채는 얘기를 어르면서 ‘당신 잘 주무셨어요? 피곤하셨나봐요. 식은땀을 다 흘리시고’라고 말할 것이다.⁷³

그의 삶은 북창을 떠나던 순간에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북창을 떠난 지 30년이 되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고운 자태로 머릿속에 남아 있고, 아들

72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66.

73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74. 강조는 인용자. ‘갇혀’는 원문의 오타.

도 갓난아기의 모습 그대로다. “아내와 아들의 나이 먹은 모습을 아무리 상상하려 해도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⁷⁴ 그러나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의 정체되어 있는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간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의 ‘늙어버린 몸’이다. “그만이 바닥 모를 시간의 구덩이에 떨어져 순식간에 늙은이”가 되어 버렸다. “새벽마다 제자리 뛰기와 냉수마찰로 옥독에 찌들린 몸을 단련했으나” “마찰포에 걸리는 마른 쇠골과 갈비뼈”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⁷⁵

냉수마찰을 끝낸 그는 만년노트에 나무젓가락으로 “견잡을 수 없는 울분과 회한, 자기모멸과 그리움을 비닐만 들면 지워질 글판에다 적고 또 적”는다.⁷⁶ 이러한 글쓰기의 행위는 그가 서사적 잔해를 어떻게든 복원하여 자신의 자아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여기서 그의 자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서사 상에 드러난 사실만을 짚어 보면 외부의 정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최근부터 한숨을 쉬는 버릇이 생겼는데, “통일과 혁명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집권당은 더욱 비대해지고 동구권에선 자본주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이다.⁷⁷ 그러나 그가 “지난 30여년 동안” “나무젓가락으로 비닐 위에 수많은 글들을 썼다 지웠다”라는 점은 애초에 그의 자아가 일관되고 통일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⁷⁸ 이러한 진실은 그가 “하얀 글판 위에 나무젓가락으로 끊임없이 쓰곤” 지우는 “거칠고 산만한 상념들” 속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⁷⁹

조국과 인민 앞에서 도대체 내가 한 일은 무엇일까. 통일과 혁명의 대의에

74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74.

75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75.

76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89.

77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75.

78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89.

79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90.

누를 끼친 것은 아닐까. 당과 수령은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난 도대체 분단 시대에 무엇이란 말인가. 교회사의 말대로 가족마저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내팽개치는 냉혈의 빨갱이일까. 전향을 앓는 이유가 혹 조국애와 사상에 대한 확신보다도 더이상 자신을 비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닐까. 그는 스치고 지나가는 거칠고 산만한 상념들을 하얀 글판 위에 나무젓가락으로 끊임없이 쓰곤 지웠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삼팔선이 없는 통일된 한반도를 그리고 그 안에다 어찌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리움으로 멀고도 가까운 가족들의 이름들을 적어놓았다.

이윽고 수인들이 탈옥해서 가족과 상봉하는 꿈을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비전향장기수를 수용하는 특별사동도 잠이 깨어 부석한 얼굴들이 시찰통에 비쳤다. 그와 더불어 모두들 삼사십년을 좁은 쇠울 안에서 살아온 동지들이었다. 소털같이 많은 날들을 신념과 회한, 끊임없는 좌절과 희망 속에서 자신들을 일으켜온 동지들이었다.

복도 끝방에서 생기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들 활기차게 대답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오늘 새벽 유달리 감상적이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아침마다 반복되는 인사말을 다시 한번 중얼거려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사동에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다.⁸⁰

“난 도대체 분단시대에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자조 섞인 질문은 그 자체로 비전향장기수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교회사의 말대로” 자신이 “가족마저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내팽개치는 냉혈의 빨갱이”는 아닌지, “전향을 앓는 이유가 혹 조국애와 사

80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90. 강조는 인용자.

상에 대한 확신보다도 더 이상 자신을 비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닌 지 스스로를 의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비관은 만년노트에 “항상 마지막에는 삼팔선이 없는 통일된 한반도를 그리고 그 안에다 어찌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리움으로 멀고도 가까운 가족들의 이름들을 적어놓”는 것으로, 말하자면 ‘혁명적 낙관주의’로 가까스레 봉합된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훑쳐 본 독자로서는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자, “생기에 찬 목소리”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아침 풍경을 더 이상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 신남수는 “오늘 새벽 유달리 감상적이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여타의 비전향장기수들도 “소털같이 많은 날들을 신념과 회한, 끊임없는 좌절과 희망 속에서 자신들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목은 그들의 낙관주의에 배어 있는 잔혹함에 대한 사색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여기서 로렌 벌랜트(Lauren Berlant)의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벌랜트는 모든 애착이 낙관적이지만, 모든 애착이 낙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애착은 끔찍하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제시하는 ‘잔혹한 낙관주의’는 실현이 불가능해서 순전히 환상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가능해서 중독성이 있는 “타협된/공동약속된^{compromised}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애착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나 장면의 현존이 그들의 안녕(well-being)을 위협할지라도 그것이 상실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애착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것의 형식이 주체가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연속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벌랜트는 멜랑콜리아와 잔혹한 낙관주의를 비교하는데, 멜랑콜리아가 스스로와 동일시했던 대상 혹은 장면을 상실한 경험을 시간적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주체의 욕망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잔혹한 낙관주의는 대상의 상실에 앞서서 미리 그것에 대해 애착을 간직하는 상황을 뜻한다. 여기서 주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대상이나 장면의 상실로 무언가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남김없이 파괴될 것이라는 점이다. 벌랜트는 이러한 잔혹한 낙관주의가 작동될 경우 처음 애착을 지녔을 당시의 “무성한 성장력^{the thriving}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⁸¹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통일에 대한 신념을 비롯해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란 애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애착에 내재한 낙관주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잔혹한 측면이 있다. 전향제도 속에서 ‘비전향’은 그들의 안녕을 끊임없이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육체가 어떠한 폭력 속에 놓이더라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애착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중단된 삶을 어떻게든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전향’은 통일이 되어 헤어진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최후의 희망을 모조리 부숴 버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곧 이데올로기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위협은 살아감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이다.⁸²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은 전향과 죽음의 선택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⁸³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비전향장기수들의 혁명적 낙관주의에서 나타나는 잔혹함이 어디까지나 ‘감힌 몸’이 되어 보지 못한 ‘관찰자’의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몸

81 로렌 벌랜트(2016),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잔혹한 낙관주의」, 『정동 이론』(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갈무리, pp. 162-163.

82 로렌 벌랜트(2016), p. 164.

83 비전향장기수 이경찬에 의하면 신춘복은 전향공작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을 택한다. “그런데 나보고 ‘어이 경찬이, 나 인제 못살 것 같애. 미칠 것 같애. 정신이상어 될 것 같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자결해 버렸어. 하도 때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개들한테 구걸하다 정신이상 되면 히튼소리 치고 전향서 써서 나가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자결한 거 같애. 고문에 의해 못 견디겠다고, 미친다는 거야. 하도 때리니까.” 안희숙·이경찬·김동기·김귀옥·최정기(2007), 『비전향장기수구술 6 안희숙·이경찬·김동기』, 국사편찬위원회, p. 238. 「살아있는 무덤」에서도 “고문에 못 이겨 전향서에 지장을 찍어주는 방에 들어와 목을 매달고 말았”던 비전향장기수 ‘타기섭’의 사례가 등장한다[김하기(1990), 「살아있는 무덤」, p. 49].

의 삶과 정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아직도 이야기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한다.

5. '갇힌 몸'을 기억하기

자유란 이 쥐의 이름이오. 학생이 고양이 기르듯 난 이 쥐를 길렀소. 학생이 특사에 고양이 안고 온 순간부터 자유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지. 먹이를 찾는 고양이의 울음에 자유는 까만 눈을 두런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했소. 자유에 접근하는 고양이 여러번 걷어차기도 했소. 그러나 간밤에 불의의 공격을 받고 나의 자유는 죽어버렸소.⁸⁴

「뿌리 내리기」(1990)는 연인과의 이별로 청산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던 운동권 학생 '김두혁'이 특사에서 비전향장기수 '박중린'을 만나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투철한 운동가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위 인용문은 두혁이 “지난날을 까맣게 망각한다는” 의미로 “까망이”라 이름 붙여준 고양이야,⁸⁵ 박중린이 기르던 “자유”라는 이름의 쥐를 죽여 버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망각’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신념과 의지, 곧 이데올로기를 망각해 버린다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중린은 비록 영어(囹圄)의 몸이지만,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있기에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⁸⁶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비전향’을 대가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그의 몸은 전향제도 속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 전향제도는 이미 석

84 김하기(1990), 「뿌리 내리기」, 『완전한 만남』, 창작과비평사, p. 121.

85 김하기(1990), 「뿌리 내리기」, p. 118.

86 김하기(1990), 「뿌리 내리기」, p. 124.

방된 장기수들의 북한으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육체를 구속하고 있다. 일례로 「뿌리 내리기」의 ‘박종린’의 실제 모델인 박종린은 ‘모란봉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향’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가, 대구교도소 내에서 채소자 인권투쟁을 벌인 것이 발미가 되어 ‘붉은별’ 조직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향 분류가 무효가 되어 진짜 전향공작을 겪게 된다. 이를 어렵게 버텼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의 몸은 이미 많이 망가진 뒤였다. 1993년 무렵부터 병보석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구교도소 측에서는 출소시켜 줄 테니 전향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차라리 감옥에서 죽겠다고 버틴다. 그러자 대구교도소에서는 “병보석을 하되, 교회와 목사가 쓴 ‘신병인수서’로 반성문을 대신한다고 결정”한다. 이에 가까스로 그는 34년의 징역을 마치고 출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 당시, 그는 ‘전향자’가 되어 있었다. “목회자의 신병인수서가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고, ‘종교 활동’은 ‘사상적 전향’이라고 통일부에서 판정”한 것이다.⁸⁷

위와 같은 사실은 장기수들이 지니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낙관주의를 잔혹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되묻게 만든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윤리적 긴장감을 야기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망각’과 ‘자유’의 관계 역시 다시 사유할 필요가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겪어야만 했던 갇힌 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망각’해 버린다면, 그들은 영원히 ‘자유’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의 ‘갇힌 몸’을 망각하지 않

87 박종린의 아내 로인숙은 평양에서 열린 장기수 환영 행사에서 박종린을 찾다가 그가 보이지 않자 큰 실망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만다. 북측에서 이번 송환 명단에 없다고 알려주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상심이 커져 실신하고 만 것이다. 안타깝게도 2005년 이후로 2차 송환의 분위기는 급격히 시들해져 버렸으며, 박종린은 끝내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21년 1월 26일 생을 마감하였다[민병래(2022), 『송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윈터박스, pp. 76-82].

는 기억의 소임이야말로 그들의 “간헐 영혼”⁸⁸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실천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하기(1990), 『완전한 만남』, 창작과비평사.
 민병래(2022), 『송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윈더박스.
 박종린 외 9인(2010), 『비전향장기수구술 8 박종린·김인수·김해섭·송세영·안학섭·김우택』, 국사편찬위원회.
 안영기·양정호·김귀옥(2007), 『비전향장기수구술 4 안영기·양정호』, 국사편찬위원회.
 안희숙·이경찬·김동기·김귀옥·최정기(2007), 『비전향장기수구술 6 안희숙·이경찬·김동기』, 국사편찬위원회.
 장호·한홍구(2006), 『비전향장기수구술 3 장호』, 국사편찬위원회.
 최하중·한홍구·한모니까(2006), 『비전향장기수구술 1 최하중』, 국사편찬위원회.

2. 논저

- 그레그, 멜리사·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2016),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갈무리』.
 김두훈·오수인(2015), 「전향·비전향 장기수의 공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 담론 분석과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4,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 41-72.
 김희진·음영철(2022), 「김하기 소설에 나타난 국가의 규율 권력과 비전향 장기수들의 대응 양상」, 『융합학문과 기독교』 3(2), 삼육대학교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 pp. 83-95.
 아메드, 사라(2023),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이미영(2017), 「'비전향장기수' 서사와 '신념'의 네트워크」,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pp. 193-223.
 이소연(2016), 「침해할 수 없는 내심의 문제:『손풍금』, 『인간 연습』 속의 (비)전향 장기수」, 『비교한국학』 24(1), 국제비교한국학회, pp. 77-110.
 스캐리, 일레인(2018), 메이 역, 『고통받는 몸』, 오월의봄.
 임유경(2016), 「체제의 시간과 저자의 시간:『서준식 옥중서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

88 김하기(1990), 「어느 수인의 좋은 아침」, p. 175.

구』 58, 한국문학연구학회, pp. 311-348.

최정기(2007), 『비전향 장기수: 0.5평에 갇힌 한반도』, 책세상.

프랭크, 아서(2016), 최은경 역, 『몸의 증언』, 갈무리.

원고 접수일: 2024년 1월 22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1일, 게재 확정일: 2024년 2월 6일

ABSTRACT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the Life of the “Trapped Body,” and Affect

Lee, So-yo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ies and ideologies of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from the perspective of affect, through the novel of Kim Ha-gi. This focuses on the suffering bodies of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and attempts to explore the ethical tension inherent in the act of articulating others' suffering. In Kim Ha-gi's texts, the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are particularly described as shedding many tears. This affective plethora is due to the fact that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were controlled in a way that reduced their body's abilities as much as possible. Every time they experienced physical pain, the prisoners lost their sense of time and were thrown into moments of narrative wreckage. Each time, they sought to restore the narrative of their interrupted lives through storytelling. Strangely enough, the revolutionary optimism they show makes the observer feel cruelty. This is because the optimism inherent in their attachment to ideology constantly threatens their well-being. However, this recognition of cruelty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an “observer” who has never been a “trapped body.” The conversion system was replaced by the

*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Digital Humanities and Computational Social Sciences, KAIST

law-abiding oath system in 1998 and abolished in 2003, but it still detains the bodies of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while deciding whether to repatriate them to North Korea. The case of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who were not repatriated to North Korea for having embraced religion and thus being considered a convert, questions who is the subject that cruelly shapes their optimism about unification. Therefore, remembering the “trapped bodies” of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would be the minimum ethical practice.

Keywords Kim Ha-gi, *Complete Encounter*,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Trapped Body, Affect, Affective Plethora, Narrative Wreckage, Storytelling, Conversion System, Cruel Optimism, Remembering